

2) 길 잃은 양이 놓여 있는 현실

위에서 마태오의 내용과 상관없이 마태오의 시대적 배경을 약술했는데, 그것이 마태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바로 길 잃은 양의 현실이 그것이다. 그것은 편의상 다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현실이다. 즉 로마제국이 정책적으로, 이미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에 가한 박해다. 둘째는 로마제국과 유착하여 유대교의 계승자로 종주권(宗主權)을 고수하는 바리사이파를 중심으로 한 라삌 유대교의 박해, 셋째는 가난의 현실 그 자체이다. 이것은 물론 편집사적 시각을 전제로 한 것이다.

(1) 로마제국의 박해에 대한 인식

먼저 마태오는 예수의 탄생설화에서부터 헤로데왕의 잔악한 유혈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로마제국이 행하고 있는 박해의 현재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반영한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여덟 가지 축복 끝머리에 연속적으로 박해당하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5, 10~11·5, 39~40 참조). 또한 감옥과 형리, 재판관 재판정에 관한 언급(5, 21~26·10, 16~23)이 빈번히 등장한다.

마태오의 특수자료인 “세례자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에 눌리고 있는데, 힘쓰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강탈한다”(11, 12)라는 말은 그것 자체로는 난해하지만, 이 말 안에는 로마의 박해

der Ernte Gottes nach dem Matthäusevangelium”, *Mitarbeiter der Schöpfung*, 1983/김창락 편, 「착취당하는 민중과 노동」, 『새로운 성서해석, 무엇이 새로운가』, 한국신학연구소, 1987, 248~313면)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란 불의한 정치적, 종교적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본다.

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 Q자료로서 마태오가 삽입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박고”(23, 34)라는 표현은 이 이야기 자체와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것도 로마의 학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오에는 유달리 지배자, 군주, 총독 또는 왕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⁴²⁾는 것은 역시 로마의 군주나 관권이 군림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Q자료로서 산상수훈에 포함되는 말 중에 ‘저항하지 말라’는 항목 가운데서 루가는 단순히 “누가 겹옷을 빼앗거든 속옷까지 거절 마라”(6, 29)라고 한 데 대해서 마태오는 “누가 너를 재판에 걸어”라는 강권적인 말을 삽입하고 “누가 너더러 억지로 5리를 가자고 하거든 10리를 가주어라”(6, 41~42)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자’라는 말은 강제노역을 나타내는 전용어로서 로마군대에 의해 강요된 상황을 반영한다.⁴³⁾

한편 최후심판 비유에서 서술되는 피해자들의 모습은 바로 길 잃은 양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자에 관한 언급으로, 유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태오의 독특한 구절로서 로마의 정치적 박해를 반영하고 있다.

42) 마태오 23장 34절의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박고’”라는 표현은 그의 추가구이다. 또 ἡγεμόν(지도자, 군주, 총독)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여 자주 언급되고(10회), 마태오 10장 18절에 ‘총독들과 왕들’이 박해자로 등장한다.

43) 이러한 실제적인 예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야 했던 키레네 사람 시몬이 공관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다(마태 27, 32 ; 마르 15, 21 ; 루카 23, 26).

(2) 바리사이파의 종주권 고수를 위한 박해

마태오는 로마제국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바리사이파적 유다교의 본거지인 회당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아야만 했다. 마태오에 따르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함으로써 유다교 회당에서 매맞고 재판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⁴⁴⁾ 이러한 매질과 재판을 강행하였던 A. D. 80년대 전후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라삌적 바리사이즘은 바리사이적인 경향들 중 사회적으로 가장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분파의 세계관을 가리킨다.

이 분파는 유다봉기가 진압된 이후 로마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유다교 영역의 대표성을 종교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적인 면에서까지도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이로부터 저들은 율법주의로 군림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중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세력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 민족적 분열을 가져왔다. 마태오는 이것에 정면으로 대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의 민중론에서 거론될 것이다.

(3) 가난과 억압에 떠돌이 된 현실

마태오복음이 쓰인 곳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틴 북부의 시리아는 유다의 피난민, 이주민 들이 많이 몰린 지역으로서 오래 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도시와 농촌에서 비할 데 없이 절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족사회에서 자기 땅을 떠나 외지로 유랑하는 것은 삶의 거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보장도 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져짐을 의미하였던바, 팔레스틴에서의 계층성과 상관없이 시리아로 유입된 피난민들은 피난지의 최

44) 마태 10, 16~20 ; 24, 29~36.

하층민으로 편입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향 잃은 모든 이스라엘민(民)의 현실의 축소(縮圖)였다.⁴⁵⁾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민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친 자들(10, 36)이고,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그날 그날의 괴로움을 겪어야만 하는 자들(7, 34),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자들(4, 23·9, 35·10, 1),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12, 20)와도 같은 사람들이다. 고향을 잃은 자들에게는 어떤 보장도 있을 수 없다. 예수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10, 17~21)고 한 말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들은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용되기를 바라며 하루 종일 시장에서 기다리는 실업자(20, 1~7)로 헤매야만 했다.⁴⁶⁾

마르코 2장 23~27절의 안식일 논쟁이야기를 전승하는 마태오는 밀이삭을 잘라먹은 이유가 굶주림이라고 밝힘으로써(12, 1) 그 민족이 처한 기아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또 주기도 중 죄(ἀμαρτια, 루가 11, 4)를 용서해달라는 것을 빛(ὄφειλήμα)에서 놓여나게 해달라(6, 12)고 바꿈으로써 가난의 상태를 반영한다.

45) “로마제국에 살던 유대 주민은 어렵잡아 약 400만 명에 달했다. 그중 100만 명은 예집트에 그리고 약 150만 명 가량은 시리아에 거주했다”(H. Ringgren, *Israelitische Religion* / 김성애 역, 『이스라엘의 종교사』, 분도출판사, 1992, 454면).

46) 마태오에 자주 사용되는 *μισθός*(품삿, 상, 벌, 10회)과 *μισθοῦσθαι*(고용하다, 중간태, 낱품팔이하다: 20, 1·7)은 시리아의 유대인들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κλέπτειν*[도둑질하다, 훔쳐가다: 마태 6, 19(2회)·20(2회)·19, 18·27, 64·28, 13; 루가 18, 20]가 다른 복음서보다 자주 등장하는 것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